

## 200자 안내

### 청색시대

#### 강석경 지음

「숲속의 방」 「가까운 골짜기」 등의 장편을 발표했던 작가의 첫 장편소설로, 원래 「순례자의 노래」(1981)로 출간된 것을 이번에 다시 표제를 바꿔 펴냈다. 최경임이라는 여대생이 청춘의 방향을 체험하면서 성숙해가는 모습을 작가는 투명한 감성으로 그려내고 있다. '청색시대'는 그대로 젊음, 그리고 젊은이의 혼돈을 상징하고 있다.

한빛 / A5신 / 286면 / 3400원

### 한국인의 역사의식 - 고대편 -

#### 정구복 지음

한국의 사학사를 중심으로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우선 역사의 첫 기록에서부터 고대사회가 붕괴되는 10세기초 신라말기 정도까지에 해당하는 고대의 역사학 발달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역사의 어원과 개념, 한국사의 시대구분을 살피고, 신화와 역사의식의 관계, 고대국가와 남북조시대의 역사의식 및 편찬작업을 서술했으며, 끝으로 한국고대인의 神異사관에 대해 고찰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B6 변형 / 154면 / 1000원

### 원효·만해·김시습

#### 김남선 지음

부처의 길을 좇아 살았던 원효스님과 한용운, 김시습의 삶을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엮은 책. 파계를 통해 거듭 새로운 출가행으로 민중의 고통을 안았던 원효와, 일제하에서 강한 지조로 민족의 양심을 지켰던 만해, 그리고 산중에 묻혀 살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했던 설잠 김시습의 삶을 통해 불자들에게 '사랑의 실천행'을 가르쳐준다.

정토 / A5신 / 156면 / 2000원

### 그들은 그렇게 잊었다

#### 박범신 외 지음

다섯명의 증견작가들의 대표적 증편모음. 박범신의 「그들은 그렇게 잊었다」 「못과 망치」, 유익서의 「어름산이 考」, 이광복의 「山村의 꿈」 「망향일기」, 이상문의 「열두발자국」,

정건영의 「승계」 등 모두 7편의 증편이 실렸다. 증편선집 시리즈의 넷째권인 이 선집의 특징을 평론가 박덕규씨는 작품해설에서 '화해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동화출판공사 / A5신 / 356면 / 3700원

### 명상은 불어오는 바람처럼

#### 이상배 엮음

국내외의 유명한 작가와 철학자들이 남긴 글 가운데, 현대인에게 사색과 명상의 시간을 제공해주는 명언만을 모아 엮은 책이다. '나무가 주는 명상'(혜세) '명상은 불어오는 바람처럼'(크리스나무르티) '소유에 대하여'(법정) '무한하고 영원한 것'(몽테뉴) 등 생명과 신의 존재, 진실과 꿈을 담은 이야기들이 잃어버린 자기만의 시간으로 이끌게 한다.

동화문화사 / A5신 / 210면 / 3000원

### 상실의 시대

####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 유유정 옮김

일본 戰後작가의 한사람으로 꼽히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적 장편소설.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프리레즈와 히피가 풍미하던 1970년대 일본사회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나오코라는 여주인공을 통해 상실의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모색한다. 원제는 「노르웨이의 숲」.

文學思想社 / A5신 / 476면 / 4500원

### 젊은 農者의 사색

#### 박창서 지음

적박한 농촌현실과 농촌문제, 그리고 농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모은 수필집. 현재 천안에서 청년농민회를 통해 영농기술을 지도하고 있는 저자가 생활하면서 느낀 농촌문제를 하나 하나 지적했다. 불합리한 영농조건과 절망하는 농촌청년, 무책임한 농업정책 등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농민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다.

글빛 / A5신 / 282면 / 3000원

### UFO연구- 현대적 신화의 탄생

#### 孟成烈 편저

UFO는 과연 실재하는 것인가. 이 책은 이른바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최근까지의 조사 결과를 자료중심으로 엮었다. 1942년 로스앤젤레스 사건을 비롯해서 지구의 곳곳에서 목격된 UFO 보고서와 문서들을 사진과 함께 실고 있다. 이미 부정할 수 없는 UFO현상에 대한 근본문제를 풀기 위한 시리즈의 첫권.

석명 / A5변형 / 206면 / 3500원

### 누룩이 된 사람들

#### 임병해 지음

휴전선 부근에서부터 남쪽 거제도에 이르기

까지 남한 구석구석을 다니며, 신앙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취재한 글 62편을 수록했다. 길 잃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신도들의 모습을 통해, 참된 크리스찬의 마음가짐과 자세란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아 볼 수 있다.

삼영 / A5신 / 329면 / 3500원

### 핵충이 나타났다

#### 신기활 지음

핵이 인류를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만화모음. 'A.F.시대의 핵충일기'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책에서 말하는 A.F.시대에는 전면핵전쟁 이후 전 인류가 멸망하고 핵충들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 책에 실린 만화들은 모두 풍자적으로 씌어져 웃음을 자아내지만 한편으로 핵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준다.

천구 / A5신 / 144면 / 2000원

### 日本經濟의 分析

#### 일본경제신문사 엮음 / 정병걸 옮김

일본경제의 실상과 현황을 분석한 「日本經濟入門」을 완역했다. 일본경제는 2차대전 이후 어떻게 고도성장을 이룩했는가, 두번에 걸친 석유파동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고도의 기술혁신 시대를 맞아 앞으로 어떻게 변신할 것인가 등을 분석·전망하고 있다.

比峰出版社 / A5신 / 734면 / 9000원

### 꼬마 성자

#### 미국 수피즘협회 엮음 / 우계숙 옮김

화가·작곡가·실내장식가·교사·정원사 등 다양한 직업인들이 쓴 18편의 우화를 모은 책.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키우려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결코 맹목적인 향락과 이기적인 물질추구에 있지 않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신세계사 / A5신 / 238면 / 3000원

### 인간주의 정치선언

#### 李龍熙 지음

평화민주당 당무지도회의 의장인 저자가 30여년간 걸어온 정치인의 길을 되돌아보면서 쓴 글들을 모았다. 정치인이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은 지조·의리·청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토지·세금·주택·교통·노동·교육 등의 문제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학민사 / B6변형 / 168면 / 2500원

### 新朝鮮革命論

#### 차철 지음 / 서석연 옮김

독립운동가이자 무정부주의자인 저자가 1948년 일본어로 썼던 책을 번역했다. 8·15해방 이후 조국분단과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으로 어지러웠던 현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는 하나'라는 명제 아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화합해야 하며, 우리는 민족 고유의 史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우사 / B6변형 / 152면 / 1000원

### 장승

#### 震檀詩同人會

박진환·정의홍·신규호·홍해리·유승우·김규화·임보·문효치 등 주로 전통적인 소재들을 노래해온 시인들의 모임 '震檀詩' 동인이 '장승'을 소재로 하여 쓴 시들을 모았다. 장승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이미지, 즉 우악스러움·무서움·어수룩함·익살스러움·인자함·곰살스러움 등을 시인마다 개성 있게 묘사하고 있어 흥미롭다.

동천사 / A5변형 / 138면 / 2000원

### 早期英語教育論

#### 鄭明鎬 지음

조기영어교육의 방법론을 실제 현장실험을 통해 고찰한 책. 어린이는 언어적 思春期 이전인 2세~12세에 보다 쉽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으며, 신경생리학적으로도 어른의 뇌보다 훨씬 유연할 때여서 국민학교 과정에서의 조기 영어교육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신문화사 / A5신 / 148면 / 4000원

### 당신이 누구신지 참으로 안다면

#### 임성숙 지음

67년 「현대문학」지를 통해 등단, 시집으로 「우주의 트랙」 「하늘보기」 등을 펴냈던 시인의 신앙을 주제로 한 시들을 한데 모았다. 기독교 신앙을 노래한 기존의 시들이 주로 성서에 지나치게 집착한 반면, 이 시집의 시들은 생활 속에 배어있는 믿음을 감지해냄으로써 우리의 문화에 알맞은 신앙의 생활화를 주장했다.

종로서적 / A5변형 / 106면 / 2000원

### 분단상황과 한국교회

#### 한국교회문제연구소 엮음

최근 고조되는 통일에의 관심 속에서 한국 교회의 통일운동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 책. 한민족의 분단상황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분단극복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를 비교한 글과 북한에서의 교회의 존재여부에 관한 글이 관심을 끈다.

한국로고스연구원 / A5신 / 200면 / 2800원

반년간지

오늘의 소설 (1989 상반기)

[특집좌담] 남북한의 역사소설에 대하여 / 김재용 · 권순궁 · 유중하
[중편소설] ▲막막한 바다(유순하) ▲이제급저 달이(홍희담) ▲새벽출정(방현석)
[단편소설] ▲금지곡 시대(이청준) ▲破虜湖(오정희) ▲기회주의자(양귀자) ▲신문과신문지(최수철) ▲戒命의 都市(고시홍) ▲벌레(김영현) ▲우리의 사랑은 들꽃처럼(정화진)
[상반기 소설평론] 폭력시대와 소설의 리얼리즘(윤지관)
玄岩社 / A5신 / 492면 / 4000원

오늘의 시 (1989 상반기)

[특집] 주요 시인의 詩論
▲시와 변혁운동(김남주) ▲차에 관한 단상들(이성복) ▲왜 싸움의 미학, 단죄의 미학, 해방의 미학이어야만 하는가(정인화) ▲이자기 시론(최두석) ▲티끌같은 詩(황지우)
[평론 I] 상반기 문제詩 진단
▲오늘의 시의 새로운 흐름들(성민엽)
[평론 II] 주요 시집 해설
▲고은 시집 「만인보」(박혜경)
▲김형수 시집 「애국의 계절」(하정일)
玄岩社 / A5신 / 356면 / 3800원

계간지

작가세계 (1989년 여름 창간호)

[李文烈특집] 「사람의 아들」에서 「변경」까지
▲문학적 연대기: 방황 · 독서 · 여행 ▲작가 일기: 젊은 날의 일기 ▲작가를 찾아서: 이문열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이순원) ▲작가의 문학론: 독자에게 보내는 작가의 편지 ▲작가를 보는 시각: 작가에게 보내는 젊은 비평가의 편지(권성우) ▲작가론: 소설공간의 확대와 사상의 실험(曹南鉉) ▲작품론: 「변경」 제1부-변두리 歷史의 小説化(金慶洙) ▲연구자료: 이문열 이렇게 연구되고 있다(李東夏) ▲다시 읽는 문제작: 필론의 돼지(논문) ▲우리문학의 내일에 대한 전망(李東夏) ▲민중문학과 노동문학(윤지관)
[해외작가] 페터 바이스 ▲페터 바이스와 「마라와 사드」의 세계(李相日) ▲마라와 사드
世界社 / A5신 / 442면 / 3800원

월간지

크리스찬 월드 (1989년 8월 창간호)

[특집] 성경으로 본 "유럽 1992"

▲최초의 유럽인 장 모네(유정희) ▲유럽공동체(EC)의 형성과 발전(김득갑) ▲유럽공동체-새로운 세계체제의 씨앗(이정명) ▲성경예언과 유럽통합(한기철)
[탐방기사] 오스왈드 스미스와 그의 회중교회(선김)
[성경과 신앙] 안식일과 참안식(권영창) / 바필수 없는 안식일(M.R. 디한)
[세계의 종교] ①종교의 기원(신국진)
[성경과 과학] 성경속에 나타난 과학 원리(헨리 모리스)
[월드 포커스] 새로운 통화제도에 대한 압력외
크리스찬 월드社 / B5 / 150면 / 3000원

언론과 비평 (1989년 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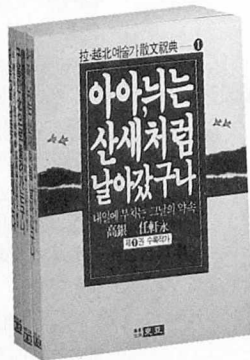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언론노조, 무엇이 문제인가(유재천, 권영길, 강명구)
[우리들의 목소리] 언론사 노동조합의 당면과제
[연구자료] 언론노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옥선미)
[두 목소리] 공영방송만으로 되겠는가 ▲커뮤니케이션 자원은 사익대상 될 수 없다(추광영) ▲시대흐름에 맞추어 방송채널 많아야 한다(윤병일)
[제언] 대통령의 「라디오칼럼」과 반론권(방정배)
[문제분석] ▲신문과 상업주의의 문제(팽원순) ▲해방 8년사의 재인식(이진경) ▲반미운동의 논리와 성격(김영환)
[오늘의 논의와 초점] 무엇이 되려는가 이음란 · 퇴폐 · 난폭문화 ▲80년대의 사회상황과 음란퇴폐문화(고영복) ▲음란퇴폐문화의 경제적 영향(이근식) ▲방송 미디어와 음란퇴폐문화(최창섭) ▲포르노문화와 문화변혁의 과제(조항제) ▲향락문화 추방을 위한 시민운동(이덕승)
언론과비평 / B5 / 248면 / 3000원



학제의 책

拉·越北예술가 散文祝典(1,2,3)

高銀 硯음



남·월북 문인, 음악가, 화가 등 문학예술인들의 에세이를 집중 수록한 「남·월북 예술가 산문축전」 전3권이 출간됐다. 이 책을 엮은 시인 고은씨는 머리말에서 "몇차례에 걸친 해금조치의 의미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

날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나, 이같은 조치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조치를 확산시켜 문화적 단절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발간취지를 밝히고 있다.

①「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②「구름만 北으로 몰려가는구나」 ③「저문날 남풍이 설레인다」 등으로 구성된 이 책은 카프문학운동을 하다가 8.15 이후 월북한 김오성 · 박세영 · 한설야 · 이기영 · 홍명희, 카프문학운동을 했으나 식민지 후반기에 친일의 흔적을 남겼던 김남천 · 이원조 · 임화, 일제 때는 순수문학을 했으나 8.15 이후 월북한 김기림 · 박태원 · 오장환 · 이태준 · 임학수 · 정지용, 8.15 당시 북한에 있었기에 그대로 북한체제에 편입한 이복명 · 최명익 등의 수필과 평론을 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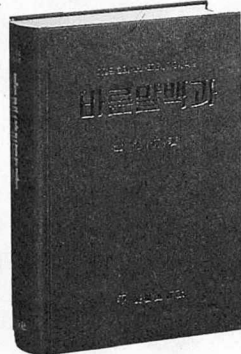
제3권에는 한국수필문학사의 복원을 주장한 문학평론가 임현영씨의 평론을 함께 실었다.

東亞 / A5신 / 각340면내외 / 각3500~3700원

학제의 책

바른말 백과

金達鎬 지음



들리기 쉬운 우리말만을 모아 새 한글맞춤법에 맞춰 풀이한 사전이다. 저자는 한국일보 교정부기자로 일하면서 바른 우리말 사용의

필요성을 절감, 일상언어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문제어들을 가려서 정리했다.

제1편 '바른말과 바른글'에는 갈치 / 갈치, 강낭콩 / 강남콩, 너머 / 넘어 등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의 어원 및 변천과정을 각각 비교설명하고, 시나브로, 읊골다, 옹고꾸리, 희나리 등 낯선 순우리말 1000여 단어를 모아 찾아보기 쉽도록 가나다순으로 정리했다. 또 同音異義 한자어와 고유어를 각각 비교하고, 원고지 사용법과 교정요령도 수록해서 사용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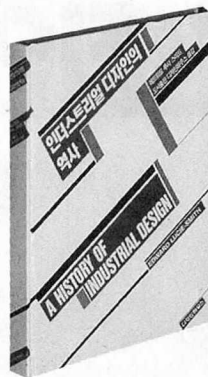
제2, 3편에는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등의 개정경위와 새 규정의 원칙을 해설하고, 세계 각국의 나라이름과 수도 및 도시명의 표기예를 도표로 만들어 담았다.

慶雲出版社 / A5변형 / 1120면 / 30,000원

이색출판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역사

에드워드 루시 스미드 지음 / 편집부 옮김



최근들어 국내에서도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디자인의 역사와 최신동향을

다채롭게 살핀 책이 출간됐다.

이 책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 현대에 들어 나타난 전문분야가 아니며 석기시대의 도구제작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나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력있게 보여줌으로써, 보다 넓은 시각에서 디자인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제1부 '전문직의 발생'은 고대와 중세를 거쳐 독일공작연맹과 바우하우스에 이르러 디자인개념이 정착 ·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추적했고, 제2부 '사례별 연구'는 자동차 · 가정용 기기 등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여러 부분을 상세히 살피고 있다. 사회의 여러 양상들과 연결시켜 디자인을 파악하고자 한 저자의 시도가 돋보이며, 다양한 사진자료도 독자의 눈길을 끈다.

디자인하우스 / A4 / 206면 / 15,000원